



‘경제적인 사람들을 위한 샤또 무똥 로스첼드’

샤또 린쉬 바쥐

Chateau Lynch Bages

지역	프랑스 > 보르도 > 오 메독		
포도품종	까베르네 소비뇽 73% 메를로 15% 까베르네 프랑 10% 뽀띠 베르도 2%		
알코올	13%	용량	750ml
등급	보르도 그랑크뤼 클라쎌 5등급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베리류의 농축되고 응축된 향과 함께 느껴지는 풀바디 와인으로 부드러운 탄닌과 맛 좋게 잘 익은 과일맛과 함께 강하게 지속되는 피니쉬가 느껴지는 와인이다.		



제품설명



경제적인 사람들을 위한 ‘샤또 라뚜르’ 혹은 ‘샤또 무똥 로스첼드’로 통하는 샤또 린쉬 바쥐는 1988년에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 매거진 “와인 스펙테이터”가 ‘올해의 와인’으로 선정하면서 더욱 유명세를 얻게 된다. 1994년에는 보르도의 가장 좋은 포도원 50개에 선정되었고 그 중 1등급인 샤또 라뚜르보다 한 등수 위인 6위를 차지해 계속 평가가 상승하고 있는 고급 그랑크뤼 클라쎌 와인 중 하나이다.

와이너리



프랑스의 와인 등급은 1855년 파리 세계만국박람회를 기점으로 분류돼 15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이 지켜져 오고 있는 그랑크뤼 와인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